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40차)

금일 주요 브리핑 내용

- 원희룡 지사, 집단감염 발생위험 관리체계 구축 지시
- 제주여행 서울 동작구 확진자 A씨 접촉자 총 33명
- 원희룡 지사, 전국 공항 출발 전 발열검사 재건의
- 제주 신천지 신도 643명 능동감시 종료
- “방역으로 안전제주 지키자” 매주 금요일 일제방역 추진
- 우리동네 우리가 지킨다’ 방역 사각지대 해소 ‘최강 백신’
- 제주지역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기폭제 되나

2020. 3. 1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0.3.12. 일일 통계 브리핑

□ 국내 발생현황 ['20.3.12. 0시 기준]

○ (제주) 확진환자 4명 (격리해제 1명, 격리 중 3명)

구분 (단위: 명)	총계	확진환자				유증상자			자가 격리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음성	
제주	1,549	4	1	3	0	1,545	51	1,494	33
일일 증감	+60	0	0	0	0	+60	-10	+70	+3
전국	234,998	7,869	333	7,470	66	227,129	17,727	209,402	

□ 입도객 현황 ['20.3.11. 기준, 잠정치]

○ 총 입도객: 17,315명 (작년 같은 날 대비 △50.2%, 전일 대비 +9.7%)

구분(단위: 명)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일본	기 타
일계	2020년	17,315	17,209	106	2	2	102
	2019년	34,769	30,774	3,995	2,227	195	1,573
	증감률	△50.2%	△44.1%	△97.3%	△99.9%	△99.0%	△93.5%
누계 (2.23.~)	2020년	281,853	276,509	5,344	381	586	4,377
	2019년	634,722	564,819	69,903	39,145	4,215	26,541
	증감률	△55.6%	△51.0%	△92.4%	△99.0%	△86.1%	△83.5%

○ 대구·경북지역 입도객 현황

- 대구-제주 항공노선(2편): (도착) 369명 (출발) 303명
- 대구·경북지역 출신학생 입도: 2명 (2.6. 이후 누계 : 130명)

□ 공항만 발열감지 운영현황('20.3.11. 기준)

구분 (단위: 명)	열감지자 총계	재측정 후 귀가 (37.5℃이하)	문진상담(37.5℃이상)		
			소계	진료상담 후 귀가조치 (의심증상 無)	선별진료소 이송 (의심증상 有)
일계	15	14	1	1	0
누계(2.3~)	1,511	1,405	106	82	24*

* 이송대상자 24명 중 17명 단순발열로 귀가, 7명 검사(음성7, 검사 중0)

□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20.3.11. 기준)

구분(단위: 명)	총계	제주도민	타 지역 주민(제주 체류)
일계	2	2	0
누계(3.7.~)	41	39	2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0. 3. 12.(목)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710-3800
		통제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10-2800
동영상 (웹하드): 있음■ 없음□		사진: 있음■ 없음□		후속자료: 있음

원희룡지사, 집단감염 발생위험 관리체계 구축 지시

- 제주도, 노래방·PC방 등 방역사각지대 우선 집중관리 -
- 제주도, 도지사 지침으로 관리 시행... 수시 점검 등 시설관리 적극 개입 -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서울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가 제주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 감염발생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해 관리체계를 구축하라” 고 말했다.

○ 원희룡 제주특별 자치도지사는 12일 오전 코로나19 대응회의에서 집단 근무·이용시설에 대한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논의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 제주도는 이에 따라 감염관리 책임자(과장급 이상)을 지정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 부여하고, 근무자 및 사업장 관리,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 유지 등을 도지사 지침으로 시행한다.

○ 특히 직원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사업장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사업장-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으로 연결되는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또한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비말 또는 접촉감염 우려가 큰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등에

대해서는 공문을 시행해 ①시설 내 적당한 거리 및 밀집도 유지 ②시설·비품·장비 등의 수시 소독 및 교체 ③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④개인위생수칙 관련 안내문 게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제주도는 이에 따라 우선 방역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는 노래방, PC방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PC방,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 상황을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 3월 9일 기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등록된 노래방, PC방, 게임장(아케이드 게임장 등), 영화관 및 공연장은 각각 559개소, 192개소다.

<다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개소)

	노래방	게임장	PC방	영화관	공연장	계
제주시	236	58	236	6	23 ¹	559
서귀포시	92	37	55	1	7 ²	192

1. 공립 9개소, 사립 14개소

2. 사립 7개소

□ 제주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내부 손소독제 비치, 청소 및 소독 등을 점검 중이다.

○ 특히 관내 노래방 236개소에 대해서는 우편발송 및 전화·문자 발송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지침을 통보하였으며, 관내 23개 공연장에 대해서는 오는 13일까지 지도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 PC방과 게임장, 영화상영관의 이용객은 평시대비 70% 수준이며, 공연장 대부분은 예약 취소로 운영 정지 상태라고 밝혔다.
- 서귀포시는 3월 6일부터 11일까지를 집중지도 점검기간으로 정해 시설소독현황을 파악하고, 손소독제를 배부하는 한편, 예방수칙 포스터 및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노래방과 PC방, 청소년게임장 등에 대해서는 3월 10일, 3개 보건소가 합동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했다.
- 아울러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주1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내문자도 지속적으로 발송할 방침이다.
- 제주도는 “서울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확진환자 다수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을 동시에 수용하는 밀폐된 시설에 대한 각별한 방역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도지사 지침을 바탕으로 민간시설이더라도 수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휴교기간 연장 등으로 학생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방, PC방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 문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윤진남 문화정책과장 064) 710-3410

제주여행 서울 동작구 확진자 A씨 접촉자 총 33명

- 타시·도 거주 24명 해당지역 관리 이관··제주도, 9명 관리 -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7일 제주에 입도했다가 당일 서울로 돌아가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접촉자 총 33명 가운데 도민이 아닌 24명은 타 지역으로 관리가 이관돼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 접촉자 수는 총 9명이라고 밝혔다.
- 제주도는 앞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 동작구보건소로부터 통보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 A씨(40대 여성)에 대한 정보와 A씨와의 직접 통화내용, 교통카드 내역 및 CCTV조사를 통해 확인한 2차 동선과 접촉자 관련 사항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붙임

제주여행 후 확진자(현재 서울 체류) 진술 및 결제내역에 따른 3차 동선

일자	시간	이동 경로	접촉자	조치사항
3.7	08:45~10:00	김포→제주 아시아나항공(OZ8915) 탑승	승무원2, 승객23 (총 25명 중 도민 1인 외 24인은 타지역 이관)	
	10:13~10:24	제주공항→제주버스터미널 버스(466번)로 이동		
	10:25~11:00	버스터미널 근처 제주기사정식뷔페에서 식사	직원 1, 손님 2	방역소독 완료
	11:00~11:24	제주터미널 외부 정류장 대기		
	11:24~13:03	제주버스터미널→광치기해변 버스(201번)로 이동		
	13:03~13:32	광치기해변 체류		
	13:32~14:11	광치기해변→동성동(김녕) 버스(201번)로 이동		
	14:11~14:25	동성동 부근 유채꽃밭 관광		
	14:25~14:39	동성동(김녕)→함덕환승정류장(함덕해수욕장) 버스(201번)로 이동	운전기사 1명	함덕환승정류장 방역소독 완료
	14:39~14:50	함덕 해수욕장		
	14:50~15:00	유드림마트 함덕점 방문		방역소독 완료
	15:00~18:30	함덕 포엠하우스(펜션) 시설 이용	직원 1	방역소독 완료
	18:33~18:45	GS25 함덕골든튤립점 방문	직원 1, 손님 1	방역소독 완료
	19:07~19:26	함덕환승정류장(함덕해수욕장)→화북남문 버스(311번)로 이동		
	19:33~20:04	화북남문→제주공항 버스(331번)로 이동	운전기사 1명	
	21:10	제주→김포 아시아나항공(OZ8996) 탑승		

※ 환자 진술, CCTV 기록, 카드사용 내역 수신 메시지 등으로 이동 경로 확인

※ 추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이동 경로 및 접촉자 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 관련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인보 과장 064) 710-2910

원희룡 지사, 전국 공항 출발 전 발열검사 재건의

- 입도부터 코로나19 선제적 차단 계획 ... 제주국제공항 1,511명 열 감지 확인 -
- 대구·경북 방문 도민 37명·체류객 2명 등 총 39명 검사 ‘모두 음성’ -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비롯해 국내 전 공항의 국내선 출발장에서도 발열검사를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요청했다.
- 원 지사의 재요청은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한 콜센터 집단 감염 사례에 따른 도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도 관문에서부터 코로나19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제주도는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도착장에 발열감지 카메라를 설치 운영한데 이어 2월 2일부터 국내선 도착장과 항만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 이어 지난 3월 5일부터 항공사와의 협의 아래 대구공항에서도 승무원과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출발 전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공항·만에서 발열감지 카메라를 운영한 결과 11일까지 총 1,511명의 열감지자를 확인한바 있다.
 - 열감지자 대부분은 체온 재측정 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송대상자 24명 중 17명은 단순발열로 귀가했다. 현재까지 7명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 대구↔제주노선 출발 전과 도착 후 승무원과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발열검사에서도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다.

- 한편, 제주도는 지난 11일 대구·경북지역 방문했던 도민 2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대구를 다녀온 도민 2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면서 대구·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책 이후 검사 인원은 총 39명(도민 37, 대구·경북 거주 2)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 11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2명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도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은 총 130명이다.
 - 이 중 100명이 최대잠복기 14일을 경과해 자율 격리에서 해제됐으며, 나머지 30명은 대학이 마련한 자체격리 기숙사 등에서 자율 관리 받고 있다.
- 11일 대구↔제주노선 항공편 도착 탑승객은 369명, 출발 탑승객은 303명으로 하루 평균 편도 탑승객은 평시 수준인 300여 명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상

(검사당일 기준 14일 이내 대구, 경북 방문이력이 있는 무증상자)

- 1순위 : 주민등록상 주소가 2월21일 이전 제주도민으로 되어 있는자
(*2월 21일 기준은 우리도 첫번째 대구 관련 확진자 발생)
- 2순위 : 제주도 주소를 갖지 않은 자(도외)로 대구, 경북 방문이력이 있는자 중
1주일 이상 체류자(체류기간 증명확인 항공권, 영수증 등 확인 전제)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한영식 총괄지원팀장 064) 710-4841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064) 710-8820

붙임 대구 · 경북 입도자 관련 통계

□ 대구-제주 항공노선 탑승객 현황 ['20.3.11. 기준, 잠정치]

제주국제공항 대구-제주 간 항공기 운항 제주출발 및 입도 현황 (단위: 명)									
	3/1~3	3/4	3/5	3/6	3/7	3/8	3/9	3/10	3/11
제주 출발	834	262	311	321	319	374	355	312	303
제주 도착	957	358	357	357	304	219	295	364	369

※ 출 · 도착 2회 발열체크, 도착시 이동경로 구분, 이동경로 1일 2회 방역

□ 대구 · 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20.3.11. 기준]

대구 · 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 (단위: 명)						
	누계(3/7~)	3/7	3/8	3/9	3/10	3/11
계	39	17	4	15	3	2
도민	37	15	4	15	3	2
제주 체류객	2	2	0	0	0	0

□ 대구 · 경북 출신 학생 입도현황 ['20.3.11. 기준, 잠정치]

대구 · 경북 출신 학생 입도현황 (단위: 명)								
계	자율격리 해제 (2/6~2/26)	14일 미경과 소계	14일미경과 (2/27~3/11)					
			2/27-3/6	3/7	3/8	3/9	3/10	3/11
130	100	30*	17	2	2	5	2	2

* 대학별 학생관리: 30명(제주대(격리기숙사14, 자가 등 11) 관광대(자가2), 한라대(대학 자체숙소 2, 자가 1))

□ 공 · 항만 발열감지 현황 ['20.3.11. 기준]

공 · 항만 발열감지 현황 (단위: 명)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열감지자	45	4	40	13	23	25	44	31	15*
누계(2/3~)	1,316	1,320	1,360	1,373	1,396	1,421	1,465	1,496	1,511

* 대구발 비행기 탑승객 중 발열감지된 인원 없음

제주 신천지 신도 643명 능동감시 종료

- 지난달 26일 이후 15일간 모니터링... 유증상자 77명 전원 음성 판정 -
- 교육생 101명도 13일 00시로 능동감시도 종료 -

-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00시부로 제주 신천지 신도 643명에 대한 능동감시가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최초 명단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를 실시한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의 지침에 따라 매일 2차례 전화문진을 해왔고, 이 기간 중 유증상자 77명을 확인하고 즉시 검진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 제주도는 명단을 제공받은 2월 26일 20:00부터 바로 전화문진에 착수하여 당일 22:00 1차 조사 완료를 완료했고, 경찰과 제주 신천지 관계자 협조 하에 28일까지 전원에 대해 문진을 완료했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내 신천지 신도들 중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없이 14일간의 능동감시 기간이 완료되었다”며 “능동감시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유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방대본으로부터 전달된 2차 명단에 포함되어 지난달 28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한 도내 신천지 교육생 101명은 오는 13일에 능동감시가 종료될 예정이다.
- 제주도는 능동감시가 종료되더라도 도내 신천지 관련시설에 대한 집회금지 조치는 전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방역으로 안전제주 지키자” 매주 금요일 일제방역 추진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깨소금’ 캠페인 전개… 민간 자발인 참여 독려 -
- 원희룡 지사, 집단감염 최대 위험요인 방삼… 행정이 방역소독 최대한 뒷받침 -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일제 방역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추진하고자 민·관·군 합동으로 일제 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민간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범도민 운동으로,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전개될 예정이다.

○ ‘깨끗한 방역소독으로 안전한 금요일’ (일명 깨소금)으로 슬로건을 정하고 대대적인 참여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 제주도가 파악한 일제 방역소독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총 2만5여 개소다.

○ 기존 공공시설은 물론, PC방과 휴게음식점,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민간시설’까지 방역소독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 제주도는 우선 오일장, 버스 터미널,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민간 방역대상 시설물 관리운영자에게는 자체 확보한 소독약품을 이용해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민간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약품, 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제주도는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깨소금’ 캠페인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는 한편,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한 자발적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 제주도는 이를 위해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내 16개 위생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발적인 동참을 위한 사전 협조 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제주도는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캠페인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사전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 앞으로 제주도는 시설 관리자와 제주도 담당부서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깨소금’ 캠페인은 오는 13일부터 해병대9여단과의 합동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캠페인 홍보를 위한 공동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 12일에는 도내 선별진료소 6개소에 해병대9여단 병력 각 5명과 제독차 2대가 투입되며, 앞서 11일에는 제주민속오일장에서 병력 30여명과 제독차 1대가 방역소독에 참여했다.

○ 캠페인 당일인 13일에는 해병대9여단의 제독차 1대와 병력을 투입해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일제 방역소독을 전개한다.

□ 제주도는 범도민적인 ‘깨소금’ 캠페인 추진을 위해 살균제와 방역 장비, 방역 인력을 총동원하고 읍면동 자생단체가 참여하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와 함께 연계해 나가는 한편, 방역소독 완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코로나19 클린존과도 연동시킨다는 계획이다.

□ 원희룡 도지사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최대 위험요인은 방심”이라며 “‘불안감’이라는 바이러스도 예방하고, 방역소독

생활화를 통해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도민의 참여를 당부한다” 고 밝혔다.

-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실내공간을 소독할 때는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을 희석*하여 소독 전 창문을 열고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과 바닥을 닦으면 된다.

* 4% 락스는 물 1L에 락스 12.5ml(뚜껑 하나), 5% 락스는 물 1L에 락스 10ml

- 특히,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등 자주 접촉하는 부분과 화장실 표면은 수시로 닦은 후 건조하면 된다.
- 실외공간에 살균소독제를 살포할 때는 반드시 개인 보호복을 착용해야 하며, 소독약품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약품이 피부에 닿았을 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야 하며, 지나가는 행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관련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인보 과장 064) 710-2910



(11일 오후 제주도와 해병대9여단이 함께 제주오일장에서 일제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동네 우리가 지킨다’ 방역 사각지대 해소 최강 백신

- 43개 읍면동 40개 단체 참여... 다중이용시설 1만3,479개소 방역 소독 -
- 민간단체, 마스크·손소독제 제작·보급... 자율방역 전국 모범 사례 선정 -

- 제주지역 자생단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운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촘촘한 방역망 역할을 하고 있다.
- 제주도는 지난 2월 4일부터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운동을 전개한 결과 11 일 현재 43개 읍면동에서 40개 단체가 참여, 다중이용시설 1만3,479곳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운동은 리·통에서부터 읍면동까지 행정 및 민간단체가 협력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코로나19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인 지역사회협력분과협의회(회장 전문수 도새마을회장)를 비롯해 읍면동 자생단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홍보와 방역(소독)활동 및 방역물품(마스크, 손 소독제)을 제작·배부하고 있다.
- 특히, 경로당·마을회관·버스정류장·클린하우스·공중화장실 등 마을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 1~2회 방역 활동이 이뤄지면서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물품 품귀 현상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 새마을부녀회와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월 5일부터 키친타월을 이용한 1회용 마스크 대용품 10만여 개를 제작·배부한데 이어 3월부터 면 마스크를 제작해 배부하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 바르게살기운동과 도연합청년회는 지난 2월부터 휴대용 손소독제(50ml) 5,500병을 직접 제작해 도민에게 배부하고 있다.
 - 제주도는 읍면동 자생단체의 방역(소독)활동 지원을 위해 손소독제 5,332개, 마스크 7만6,820개, 무선 소독살포기 88개, 압축분무기 496개, 방역복 4,664개, 소독약품 130개, 고글안경 260개 등의 방역물품을 보급했다.
 - 이와 함께 마스크 기부와 성금 기탁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민들의 온정도 이어지고 있다.
-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운동이 호응을 얻으면서 서울·인천·부산·울산 등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민관협력 체계 구축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 제주도는 앞으로도 민간 차원의 자율 방역활동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 관련 문의 : 특별자치행정국 강동우 자치행정과장 064) 710-6830

1 방역(소독)현황

* 누계 : 2.7. ~ 3.11.

구분		참여 현황		방역 장소					비 고
		참여단체	인원	계	경로당	마을회관	버스정류장	기타	
합계	누계	40개 단체	5,113	13,479	806	700	8,016	3,957	행정시별 확진자 동선 긴급 방역
	일계	21개 단체	359	983	10	51	465	457	
제주시	누계	16개 단체	2,763	5,209	476	384	3,027	1,322	
	일계	9개 단체	177	405	5	20	205	175	
서귀포시	누계	24개 단체	2,350	8,270	330	316	4,989	2,635	
	일계	12개 단체	182	578	5	31	260	282	

1) 방역(소독) 실적 : 30개 읍면동, 21개 단체, 359명, 983개소 실시

2) 기타 방역(소독) 장소 : 주간보호시설(센터), 장애인이용시설, 클린하우스, 놀이터, 공중화장실, 어린이공원 등

참여 단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율방재단, 마을회, 이장연합회, 통장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보장협의체, 재향군인여성회, 청년회, 상가번영회, 귀농귀촌, 청소년지도협의회, 의용소방대, 여성단체협의회, 재향군인회, 대한적십자봉사회, 장애인지원협의회, 해병대전우회, 발전협의회, 라이온스클럽, 노인회, 상인회, 예비군동대, 민속문화보존회, 여성중앙회, 기타 동호회 등

2 주요 방역(소독) 계획

○ (제주시) 읍면동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활동(3.12.)

- 11개 읍면동 · 16개 단체 · 171명 참여, 224개소 실시 예정

○ (서귀포시) 다수밀집이용시설 특별 방역 실시 : 예식장, 의례회관, 신고체육시설 등

- 결혼, 돌잔치 등(12개소) : 12 ~ 13일 방역실시 / 장례식장 : 방역 권고

3 미담사례

【제주시】

○ 도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양영우) 생필품 기탁(쌀10kg 30포, 취약가구)

○ 건입동 주민(김추자 님) 공동모금회 통해 200백만원 지정 기탁(저소득층)

○ 애월읍 하귀1리 새마을작은도서관 마스크 200매 기부

○ 익명의 기부자 제주시예 KF마스크 300매와 손소독제 60개 기부

【서귀포시】

○ 대륜동지역자율방재단(단장 양성흠) : 재난대책본부 격려(간식)

○ 대천동지역자율방재단(단장 김영철) : 상품권 기탁(1백만원)

○ 표선 제주임당 토탈공예 전해금 강사 수제 면마스크 20개 취약가구 전달

-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안전보안관, 새마을회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방역활동을 개진 (행정안전부 자료 발췌)

자치단체	주요 내용
서울 양천구	· 민·관 합동 총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각 직능단체 및 나비남 멘토·멘티 등 100여명이 지난 27일 ‘주민자율방역봉사단’을 발대하고 경로당, 西서울어르신복지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찾아 소독작업과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활동을 실시 ※ 봉사단은 각 직능단체원, 나비남 멘토·멘티 등 40여명이 4개조를 이뤄 동주민센터, 경로당 등 관내 주요시설과 골목시장, 버스정류장 및 공원 등을 정기 방역할 계획
서울 서초구	· 방역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지난 5일 지역 주민 300여명이 ‘서초방역단’을 구성하고 3차례에 걸친 방역교육 후 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공시설 약 330여개소와 종교시설 110개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하고 주민들의 방역신청에 대응 출동해 총 772개소 방역을 실시 ※ 아울러 1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장에서 ‘안전기동반’을 운영하고 학교 졸업시즌 동안 현장에서 체온측정과 손 소독 후 행사장 입장을 지원
서울 영등포구	· 신길 6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재단,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연합회 등 14개 단체 321명의 회원은 ‘민·관 협치 방역단’을 구성하여 단체별 5개조로 나눠 매일 50여 개소씩 다중이용시설을 소독 ※ 동 주민센터는 방역에 필요한 소독기, 약품, 마스크, 장갑 등을 제공하고 일반주민에게도 방역 도구를 무료 대여 중
부산 금정구	· 부곡4동 주민자치위원회, 각 마을 통장 등이 안심방역단을 구성^(2.21.)하여 경로당 등 시설 방역을 실시하고 손 세정제, 소독용 물티슈 등 예방 물품과 감염 예방수칙을 전달, 방역단은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지속할 계획
인천 동구	·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중심으로 주민자율방역단·안전모니터봉사단·새마을방역단으로 구성된 긴급방역단을 운영해 재래시장, 종교시설 및 집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하루 1회 방역소독과 ULV차량분무소독을 실시 ※ 아울러 방역 취약시설에 마스크 4천개와 손 소독제를 배부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줄 것을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울산시	· 10일부터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지역 안전 관련 단체가 릴레이 소독·방역 봉사를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 버스 승강장 등 방역과 함께 감염병 예방 안전 수칙 홍보활동도 전개
전남 나주시	· 빚가람동 주민자치위원회, 빚가람동발전협의회, 통장단, 청년네트워크, 산포농협 빚가람동산악회 등 소속 회원 40명은 혁신도시 내 14개 아파트 단지 경로당·노인정, 어린이도서관, 관리사무소, 상가 밀집지역 등을 방역하고 어르신들에게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배부 · 전국자율방재단 광주시연합회는 지난 6일부터 하루 12시간 이상 소방학교에 격리된 환자들의 식사 지원 및 방역 소독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 · 광산구 월곡2동 지역사회단체와 상가번영회, 고려인마을 주민 등 50여 명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주변과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소독을 실시
경기 평택시	· 용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7일 용이동 직원들과 함께 공원, 놀이터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
경북 안동시	· 풍산읍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체육회 등 지역 단체와 연계해 관공서, 대형식당, 종교단체, 버스 승강장, 공중화장실, 전통시장, 농기구센터 등을 대상으로 수시 방역을 실시

제주지역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기폭제 되나

- 제주경제통상진흥원·ICC제주 등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5곳 동참 -
- 코로나 위기 입주업체 경영난 해소 차원 임대료·관리비 등 감면 -

- 제주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5곳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감면에 나섰다.
-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곳은 제주관광공사,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다.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은 5곳의 입주업체에 대해 3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 40%를 감면한다.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등 입주기업 5개사의 관리비를 3월부터 6월까지 전액 감면한다.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입주업체 4곳에 대해 3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 30%를 감면할 계획이다.
- 제주관광공사도 입주업체 1곳에 대해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관리비 50%를 감면한다.
-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76개 입주기업에 대해 3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월 28일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에서 발표한 ‘상생과 배려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에 부응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기관 관계자는 “입주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동참하게 됐다”며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 도는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부가세로 자동 감면할 방침이다.

※ 관련 문의 : 비상경제상황실 문여환 비상경제기획팀장 064) 710-3591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김명숙 세정팀장 064) 710-6881

붙임

제주도내 공기업·출자기관·출연기관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현황

구분	기관명	임대건물	임대료 감면 계획	비고
공기업 (1)	제주관광공사	1	소상공인 관리비 50% 감면 (2020. 3. ~ 2020. 12.)	관광공사 내 카페(1)
출자기관 (1)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4	소상공인 임대료 30% 감면 (2020. 3. ~ 2020. 8.)	컨벤션센터 내 소상공인(4)
출연기관 (3)	영상·문화산업진흥원	5	입주기업 관리비 전액감면 (2020. 3. ~ 2020. 6.)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입주기업(5)
	제주테크노파크	76	76개 기업임대료 30% 감면 (2020. 3. ~ 2020. 12.)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23	소상공인·기업(5개) 임대료 40% 감면 (2020. 3. ~ 2020. 8.)	진흥원 내 공공기관 임대(18) 소상공인·기업(5)

- 〈참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6.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